

사부대중의 신년계획 들어보기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꿈 이뤄야”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 오 스님

진오 스님은 꿈이 많다.

구미 외국노동자상담센터 마하뫼다센터를 비롯해 대전·대구·경남·광주 지역과 네트워크사단법인 등록, 전국 이주노동자 사업의 네트워크 형성, 이주노동자 결혼식 및 체육대회, 가정폭력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집을 나온 이주여성들의 쉼터 ‘죽향 집터’의 보호 기간 연장, 다문화 모자원 건립추진과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수많은 꿈은 갑자기 계획되지 않았다. 10여 년 전부터 다문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보고 느끼며 오래도록 고민한 흔적이다.

계획한 일을 실천에 옮기려면 사회 행정과 상식을 전문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시도군청 등 행정기관 직원들을 만나는 일이다.

“당장은 서로가 연관돼 있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맞은 인연이 언제 어떻게 무엇이 돼서 만날지 모릅니다. 계획한 일을 성사 여부를 떠나 항상 상대에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니까요.”

스님은 늘 활력이 넘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오 스님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가 기대된다. 또 해가 저물 때에는 소중한 하루를 마무리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한 가지만 원을 성취해 보세요. 이루지 못했다면 목표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세요. 작은 일부터 이루다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진오 스님은 다문화 모자원 건립을 위해 ‘하루 500원 후원자’를 하루 한 명씩 모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0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앞으로 총1080명의 후원자를 모을 예정이다. 작은 일 같지만 1080일 이후에는 큰 일이 될 모금활동이다. 진오 스님은 “작은 일이 안 되면 큰 일도 이룰 수 없다. 작은 일을 성공하면 희망은 점점 커진다”며 “큰 것만 생각하면 얻을 수 없는 장애물만 생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종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 일터. 진오 스님은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하거나, 중요한 일에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철인삼초 경기를 하며 휴식을 취한다. 스님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몸 건강을 스스로 꼭 챙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진오 스님

꿈에서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무명을 밝히고 지 현 스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사는 의미가 보일 것입니다.”

고려대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현 스님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병의 재발로 반신불수가 된 환자,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 환자들이 살을 부비며 살고 있는 지현 스님에게 신년 계획은 세속적인 것과 확연히 달랐다.

“계획이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야죠. 대중과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저 자신 또한 하심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관세음보살의



진오 스님

원력과 미소라도 잃지 않는 삶을 생각할 뿐입니다.” 지현 스님은 늘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도움을 고민한다.

“어릴 땐 나도 생명이거나 하나인줄 몰랐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불교방송, 복지관, 강의, 병원 임상시험센터윤리위원, 장기이식센터윤리위원 등 많은 일들의 계획을 세우다 보면 스님 자신을 위한 계획은 없다. 결국 환자와 이야기 하면서 서로 푸념하고 들어주는 일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살과 죽음, 병과 고통이 살아 숨 쉬는 병원에서 ‘오늘’의 의미는 남다른 것 같다.

“오늘은 그저 오늘일 뿐,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범한 하루입니다. 큰 의미가 없죠. 눈이 충혈이 돼서

하루를 마무리 하며 잠에 드는 것과 죽음에 이르는 것은 큰 차이가 없듯이 말이죠.”

살은 그냥 살 자체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 그만이다. 삶을 마감할 때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과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차이가 없다.

지현 스님은 “살에 침표가 필요하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작정 달리는 것은 아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라며 격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투리 시간 이용 집중력 키워 명상·염불 통해 에너지 충전”

홍익대 미술학과 정경연 교수

“만약 지금 죽고 없다면 늘 안타깝달 했던 일들이



지현 스님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든 무리해서 성취하기 보다는 나이에 맞게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갑으로 섬유예술의 지평을 연 홍익대 정경연 교수(56)는 30년 전에 대학교수가 됐다.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는 36년째다. 1인 1역도 힘든 세상에 그녀가 맡은 역할은 벽차보였다. 정경연 교수는 “하나에 매진해도 잘할까 말까한 일을 남들과 같이 24시간 내에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일반 하던 되는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만했죠. 자투리 시간이 생겨도 온통 일 뿐이었어요. 계획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 자신을 책망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50를 훌쩍 넘으면서 신체에 변화가 생

겼다. 차츰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계획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못할 수도 있다. 또 다시 실패해 보자”며 긍정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다. 또 완벽하게 잘 하려고 하기 보다는 크게 소원해지지 않는 정도의 책임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한 달,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예전 같지 않게 눈이 쉽게 침침해 저요. 기억력은 물론 두뇌회전도 젊을 때만큼은 너무 달라요. 작업 중간에는 꼭 쉬는 시간을 갖고 행선, 좌선 등 명상이나 다라니 염불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 보니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경연 교수는 자투리 시간을 “최고의 집중력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쉬지 않고 억지로 할 때는 좋은 작품이나 성과를



정경연

얻기 어렵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터득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에 대비해 인생의 마무리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잠도 안자고 건강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경연 교수는 올해 예술의 전당에서 초대전을 준비한다. 또 20·30년 후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연구 매진할 계획이다. 그녀는 많은 계획 속에서도 휴식과 여유, 명상을 꼭 챙겼다.

“시간 낭비하는 것은 집중되지 않는 것 집중안되는 것은 하는 일 모르는 것”

지혜경영연구소장 손기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낭비하는 시

간을 줄이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잘 나가는 회계사였던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50)의 인생을 바꾼 것은 명상이었다. 손기원 대표의 꿈은 올해도 한결 같다.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명상을 통해 지혜롭게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 손 대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기원 대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침 전·후 30분간 명상을 한다. 행주좌와 어묵동행(行住座臥 語默動靜), 늘 깨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회계사를 관두고 연구소 소장이 됐다고 해서 한 가해 지지는 않았다. 명상을 하면서 1년, 1개월, 1주일, 1일, 1시간 까지 목표를 정하고 점검한다.

“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손기원

일만 하다보면 일상에 쫓기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성공은 언제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의 과정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똑같습니다.”

손 대표는 명상 외에 기업교육, 청소년 학교 교육, 대학 강의 등을 통해 명상과 동양사상을 알리고 있다. 한 치의 오차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 일을 소화해야 하는 그에게도 부하가 생길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 주말에도 일을 하면 40~50대부터는 몸이 무리가 옵니다. 이때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은 줄이고, 못하겠다고 사양을 해야합니다.” 그는 명상이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손 대표는 “가족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고귀명수(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 안내!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보·내정·신분·귀신·부정·산소탈등의 정확도·편이도·효과성이 백미입니다. 미리 알고 먼저 말하게 되는 명품(名品)입니다. http://한국육임학회 팝업에 ‘활용효과성’을 위한 아래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과 ‘고귀명수’의 각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완결 최종판 안내



- 정가 : 5백만원
- 기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 업그레이드내역 :
 - 가. 승인(인승)기능을 없앴음.
 -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녀 구분 및 여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친장 분별과 낮·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 남녀상간관계(一男二女·一女二男)와 불비·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四課 全 - 陽 - 陰)에 대한 채용·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잘못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데

- 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 교동(敎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책정거려 하는 것)과 음일(陰淫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 태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처첩·자녀·부모·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 형광사의 대상과 안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 고등(사법·행정·외무·법리·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 12부정(邪宗)중 부정침범부위(신변·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 산소탈 14부 중 모지속 상태에서의 ‘범골’ 여부·‘복골’ 여부·‘수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 집안에 귀물(鬼物 : 木·火·土·金·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 기타에 있어

-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져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교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2·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보강·삭제 시켰으므로 완결 최종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I·II·III CD 프로그램”의 교환 요구가 많아 2011.1.24~2.15일까지 교환 기간을 정했습니니다. 이 기간 안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 교환가격 위 I 90만원 위 II 70만원 위 III 50만원 위 III 30만원
 - 분개(分個)육임산책 CD 150만원
 - 분개(分個)육임대정비법 100만원

www.taotemple.net

2.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 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성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메일메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 해 놓은 해당 소문 필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일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 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질병 관계 / 직업·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境遇) / 배우자 성정·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유유 및 그 거소리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유 및 그 거소리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천·구(禱·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길흉관계 / 떠벌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의 명 관계 / 초년·중년·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 관계 / 초·중·말년 12직사귀·12병귀·침범 관계 / 신변·가택·초·중·말년 12부정 침범

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모지 속 ‘범골’ ‘복골’ ‘수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제(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색정·생사별·사고·사건 관계 / 12궁위(本命·財·兄弟·田宅·子息·奴業·夫婦·病厄·遷移·官職·老後福德·刑罰)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신속도·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鼓龜命數 第二十七集
고귀명수
- 육임운명판단법 -
(第1卷 甲子旬)
戊子年 曉史 共著
戊子年 乙山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정가 350만원 / 순백 6권 / B4규격 / 미색모조지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즉 복·명(卜·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 등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켰을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예제자 귀족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小命)으로써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후·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자대’ 이면서 ‘칼’임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辛卯 季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정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학습서들입니다. 아래 활용서들은 육임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오행술을 몰라도 바로 활용하여 효과를 얻게끔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 활용서

- 육임대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효사육임복본집(좌정용)
- 도사에게 물어봐(2011 중보판)
- 출산길일시태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명수(2011 개정판)
- 육임1년신수비결(2011 개정판)
- 육임대정비법(중보개정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계율집(佛家法要集) - 고령재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외의 김동성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서(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2011년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육임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본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검정법(2011 개정판)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상권 : 육임각법총합구성 / 2050쪽(학습용)
 - 하권 : 육인서 역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판/ 시과삼전보기요령/형목별주요신정제시/사과삼전보/천지반표/과/격/조사/국수해설/형목별성부대정 수록 / 2015쪽(임상용)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협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

※ 카드결제 가능함 ※